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연구

오동일*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A Study on the Masculinity of Male Characters Represented in the Disney Feature Animation *Frozen*

Dong-II Oh*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Contents, Sun-Moon University, Asan-si 31460, Korea

[요 약]

디즈니 스튜디오는 동시대 관객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미체계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을 지향해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은 동시대의 주류적인 지배적 신화를 근간으로 하는 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는 단순한 미학적 현상이 아니라, 동시대의 문화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들의 젠더 정체성은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으며, 그것은 사회적 가치관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성 역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Abstract]

The Disney Studios have been aiming at the animation storytelling of the signification system that the contemporary audience can universally accept. And it can be said that such storytelling is aesthetic expression based on the contemporary mainstream dominant mythology.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changes of the masculinity of male characters that are represented in the Disney feature animation *Frozen* are not just a simple aesthetic phenomenon but a strategy of animation storytelling that reflects the contemporary cultural and social trend. The gender identity of the male characters of *Frozen* is completely freed from the existing stereotypes about Disney feature animations, and it positively presents the changes of the gender roles that reflect the changes in social value and the needs of the times.

색인어 : 디즈니 애니메이션, 남성성, 젠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겨울왕국

Key word: Disney Animation, Masculinity, Gender, Animation Character, Frozen

<http://dx.doi.org/10.9728/dcs.2017.18.7.12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07 September 2017; **Revised** 11 October 2017

Accepted 25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Dong-II Oh**

Tel: +82-041-530-2448

E-mail: ohdianimation@hotmail.com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종합예술의 특징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경험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관객이나 시청자가 애니메이션 작품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작품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감성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조 산업 분야의 제품과 달리 상대적으로 표준화와 수요 예측이 어려운 애니메이션 작품은 성공에 따른 고수익만큼이나 실패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주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가는 캐릭터의 디자인과 움직임에 대한 미학적 시도와 변화의 모색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디즈니 스튜디오는 작품에 대한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 현상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의 흥행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시대 관객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미체계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그러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은 동시대의 지배적 신화를 근간으로 하는 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masculinity) 변화는 단순한 미학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대의 문화사회적 흐름 속에 나타나는 젠더 정체성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중은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이 반영된 디즈니 스튜디오의 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며, 관객으로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성적 충성도를 높여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의미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는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중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남성 캐릭터가 표방하는 젠더 정체성의 변화를 캐릭터 간의 관계와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따른 디즈니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이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 소통적 관점에서의 보편성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에 관한 젠더 담론의 대상은 디즈니 스튜디오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 공주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로 이데올로기, 인종, 지역 등의 관점에서 캐릭터들의 성역할 고착화 현상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성역할에 관한 문화사회적 인식 변화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에는 그와 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목할 만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산출되고 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의 성역할 고착화가 오랜 시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법론적으로 먼저 남성성에 관한 문헌연구를 선행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을 젠더 정체성의 변화와 구조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 집단 내에는 다른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다 남성적이거나 혹은 덜 남성적인 다양한 남성성들(masculinities)이 공존하고 있다. 여기서 남성성이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남성성은 구조적 틀 안에서 수행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코넬(Robert W. Connell)은 남성 집단 내에 존재하는 남성성들의 구조적 관계를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종속적 남성성(subordinated masculinity), 공모적 남성성(complicit masculinity), 주변화된 남성성(marginalized masculinity)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2]. 이와 같은 코넬의 시각과 논의는 캐릭터 간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젠더 역할의 구체적인 의미체계가 형성되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적 텍스트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드 프랭클린(Clyde W. Franklin)이 정리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보수적인 젠더 고정관념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며,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와 젠더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다[3]. 그는 일반적 통념 속에서 나타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잘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라는 시대적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적 요소들이 채워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4].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화사회적 영향 속에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과 여성 캐릭터의 여성성 변화가 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볼 때, 프랭클린의 논의 내용은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와 특징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디즈니 스튜디오의 5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Frozen, 2013)>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와 젠더 정체성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

고자 한다. <겨울왕국>은 작품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엘사와 안나 두 여성 캐릭터를 통해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젠더 표상을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에서 보여주었다[5]. 그러므로 <겨울왕국>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변화가 획기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비례적으로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또한 상대적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겨울왕국>은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왕국>에서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 집단 내 구조적 관계와 보수적인 젠더 고정관념에 대한 코넬과 프랭클린의 선행적인 논의가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작품 속 극 중 캐릭터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남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남성성에 관한 담론

2-1 남성성의 고정관념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어떤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표준화된 정신 표상, 과도하게 단순화된 견해, 편견적 태도, 무비판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남녀라는 사회적 범주에 개인적 속성을 연결시키는 추론관계의 구조적 집합체이며, 동시에 특정 사회집단의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6].

특정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이상적인 남성성은 부정적인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육체와 정신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남성성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진정한 남성성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는 주변적 남성 부류들에 대한 전형적이며 차별적인 표현들은 이상적인 남성성을 강화시킨다는 정당성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성에 관한 부정적인 의미의 고정관념은 현대적 남성성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앞서 언급했듯이 코넬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최상위의 지배적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지칭했으며, 백인 중산층 이상의 이성애자 부류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사회집단 속에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과 대립될 수 있는 비(非)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배제함으로써 재확인되고 강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집단에 존재하는 다양한 남성성들이 문화사회적 관계 속에 재배치되면서 다른 유형의 남성성을 배제하고 특정의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8]. 이러한 논의는 현대 사회

에 존재하는 남성성의 고정관념에 관한 구조적 관계와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그와 같은 남성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성성의 고정관념은 계급, 문화, 연령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학습과 행위 규칙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구성된다. 그러므로 남성성의 고정관념은 사회적인 성(gender)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9].

2-2 남성성의 관계 구조

사회집단 속 남성성은 연대, 지배, 종속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위계질서가 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남성은 남성적이지만 어떤 남성은 상대적으로 덜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남성성은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행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남성다움(maleness)이라는 생물학적 개념과 다르게, 남성성은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젠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성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성 집단의 구조적 관계를 헤게모니, 종속, 공모, 주변화라는 주요 키워드로 접근하고 있는 코넬의 논의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0].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가시적이며 실제적인 권력을 통해 남자들의 지배적 위치와 여성 종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반면에, ‘종속적 남성성’은 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부류의 남성 집단을 의미한다. 헤게모니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지배와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 집단 사이의 지배와 종속에 관한 구체적인 젠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젠더 관계의 가장 중요한 상대는 이성애 남성의 지배와 동성애 남성의 종속이다. 즉, 헤게모니와 관련해서 논의한 두 남성성은 힘의 소유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일부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패권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남자는 소수인 반면에 공모적 남성성은 다수의 남성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남성들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전반적인 여성 종속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된 남성성’은 지배 그룹과 피지배 그룹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주변화는 지배 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다인종 사회의 경우 소수 인종이 이 범주의 남성성에 포함될 수 있다. 인종 관계는 남성성들 사이의 역학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흑인 남성성들은 백인의 젠더 구성에 상징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의 구분은 변화하는 관계 구조의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은 두 남성성의 성격 유형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이론적 가치를 내포하기 위해서는 관계 구조의 변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11][12].

2-3 남성성의 전형적 특징

남성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특권적 권력의 원천으로서 남성성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접근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별(이하, 젠더로 표기)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문화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인성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 그것은 젠더를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생물학적 성의 문화적 연장으로 보는 것이다[13].

표 1. 남성과 여성의 전형적인 특징
Table 1. Male and Female's Stereotypic Traits

구분	특징 내용	
남성성	공격적	쉽게 상처받지 않는 감정
	독립적	모험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쉽게 결정을 내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대 울지 않는
	객관적인	지도적인 행동
	자신감 있는	지배적인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야심적인
	능동적인	논리적인
	사업에 능숙한	세속적인
	경쟁적인	직접적인
	세상사 이치를 아는	
	작은 위기에 당황하지 않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공격적인 것에 거북해하지 않는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여성성	강한 표현을 삼가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수다스런	관습적인
	재치 있는	조용한
	부드러운	안전에 대한 강한 욕구
	타인의 감정을 아는	종교적인
	예술과 문학에 조예가 있는	
	다정다감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표 1>과 같이 프랭클린은 근대라는 시대적 관계 속에 만들어진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적 특징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14]. 그러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버틀러(Butler)는 가부장적 권력이 성 이분법, 이성애적 사고방식을 영속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성애와 동성애 범주는 가변적이며 부정형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젠더 정체성이 수행적(performative)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주체는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15][16].

버틀러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랭클린이 기술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성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동시에 근대적 사고에 의한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성의 특징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수학

과 과학을 좋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과학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근대사적 관계 속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관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는 것으로써 젠더적인 특징을 이원화시켜 구분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사회적 환경 속에서 수행적으로 구성된 젠더 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특정한 생물학적 성이 곧 그 개인의 젠더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성과 젠더 간의 관계가 한 개인에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17].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정리한 <표 1>의 내용은 연구 방법론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것은 본 연구를 통해 주로 다루고자 하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캐릭터 디자인과 의미적 행위가 <표 1>의 내용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Fig. 1.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년에 발표된 디즈니 스튜디오 최초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백설공주 캐릭터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예쁘고 큰 눈, 수줍음, 모성애가 넘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왕자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백설공주라는 여성 캐릭터는 우익적 정치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월트 디즈니(Walt Disney)의 가부장적 경향이 잘 반영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요소라고 할 수 있다[18][19]. 백설공주와 마찬가지로 <신데렐라(Cinderella, 1950)>에 등장하는 신데렐라 또한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극복하는 능동적 캐릭터가 아닌 여리고 착한 마음을 간직한 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수동적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두 캐릭터는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모습과 여성스러움이 극대화된 몸짓으로 표현된다[20]. 그리고 이러한 두 캐릭터들의 표현적 행위는 극 중 남성 캐릭터의 그것과 대비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이분법적 젠더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은 디자인과 움직임에 있어서 전형화 된 의미체계를 보여주었

으며, 그것은 프랭클린이 기술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이분법적으로 구현된 미학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물란(Mulan, 1998)>에 등장하는 강인하며 영웅적인 여성 캐릭터와 같이 시대적인 요구와 문화사회적 영향에 따라 캐릭터들에서 보이는 이분법적인 젠더 정체성의 전형성은 점차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과정 속에서 버틀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작품 속 캐릭터들 간의 이성애적 범주가 가변적이며 부정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전형적 특징과 부합하는 <표 1>의 내용은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토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이 출현했던 시기는 20세기 초다. 산업사회 초기였던 당시 시대적으로 요구됐던 남성성의 특징은 여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남성다움의 일부로서 공격성과 용기를 갖춘 강한 남성이었다. 이러한 남성성의 특징은 <표 1>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성성의 전형적인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초기 산업사회가 요구하던 남성다움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여성 해방 운동의 등장과 더불어 지배적인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여성 스스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21]. 그것은 <표 1>의 내용을 통해 언급했던 산업초기 남성성의 특징으로부터 점차 변화된 젠더 정체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또한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정서를 반영한 남성 캐릭터의 새로운 젠더 정체성을 작품 속에 그려내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전 세계 관객과의 보편적 소통을 추구하는 그들의 애니메이션 전략이기도 했다.

III. <겨울왕국>: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분석

3-1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관점

앞서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통해 언급했듯이,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에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근간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미학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 작품은 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신화 구현과 메시지 전달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러한 접근은 디즈니 스튜디오 고유의 애니메이션 미학 기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캐릭터의 디자인과 움직임, 제스처, 태도 등을 통해 프랭클린이 설명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전형성이 잘 드러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캐릭터들은 당시 디즈니 스튜디오가 추구하였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으며, 함축적이기 보다는 외시적인 의미작용을 통해 관객의 직관적인 이해와 수용을 가능

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성 변화

Table 2. The Changing of Femininity in Disney Animation

성격변화	여성캐릭터	여성상	제작연도
순종적, 객체적 ↓ 능동적, 주체적	백설 공주	완전 순종형	1937
	신데렐라	부분 순종형	1950
	오로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불만 순종형	1959
	에리얼 (인어공주)	반항 가출형	1989
	벨 (미녀와 야수)	침착한 평강공주형	1992
	자스민 (알라딘)	능동적 내조형	1993
	포카혼타스	반민족적 애정추구형	1995
	에스메랄다 (노틀담의 꼽추)	헌신적 집시여전사형	1996
	물란	잔다르크형	1998
	티아나 (공주와 개구리)	현실적 자립형	2010
	라퐁젤	자아 탐구적 가출형	2011
	안나 (겨울왕국) 엘사 (겨울왕국)	긍정적 자립형 자아 실현적 가출형	2013 2013

<표 2>에서와 같이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장편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는 이분법적 가치관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반영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젠더의 고착화와 정형화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커지고 여성에 대한 시대적 정서가 달라짐에 따라서 여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 또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졌다[22].

실제로, 디즈니 스튜디오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1989)>를 기점으로 다원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데올로기적 수용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다.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1991)>, <알라딘(Aladdin, 1992)>, <포카혼타스(Pocahontas, 1995)>, <물란>에서 보이는 남녀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은 그와 같은 변화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젠더 정체성에서 탈피해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과거의 수동적 여성 캐릭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남성 캐릭터는 보다 섬세하고 탈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묘사됐다[23].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 초기 작품에서는 남성 중심의 헤게모니가 스토리텔링의 중심적인 방향이었으나, 점차 여성과 여성이 대등하게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남성 캐릭터의 헤게모니는 상대적

으로 약해져가고 마침내 <겨울 왕국>에서는 남성 캐릭터들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림 2.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
Fig. 2. Elsa and Anna in Frozen

<겨울왕국>의 두 여성 주인공 캐릭터 엘사(Elsa)와 안나(Anna)의 젠더 표상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시대정신과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체계를 구현한 것이다. 이들 캐릭터는 자매애(sisterhood)적 연대감과 조력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 가며 남성 캐릭터들을 포함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능가하고 지배하는 성취욕과 자신감을 보여준다[24]. 특히, 엘사와 안나는 생물학적 여성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섹슈얼리티(sexuality)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남성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적이며 능동적인 실천적 행위를 보여준다.

<겨울왕국>에서 보이는 엘사와 안나의 헤게모니적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젠더가 절대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고려하여 행동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형화되고 부과되는 행동양식의 반복과 그로 인한 수행적인 효과(performative effect)를 통해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25][2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에서 엘사와 안나가 보여주는 양성적 특징의 통합성과 헤게모니적 지배력은 관객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젠더 정체성의 특징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는 <겨울왕국>에서 보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부재에 대한 적절한 이유와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 종속적 남성성의 관점

헤게모니 중심의 남성 집단에서는 지배와 종속에 관한 젠더 관계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의 동성애 남성은 문화사회적으로 이성애 남성에게 종속되며, 더 나아가 동성애 남성은 헤게

모니적 남성성에서 상징적으로 추방된 모든 것의 젠더 표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남성만이 종속적 남성성의 유일한 집단은 아니며, 이성애 남성 집단 내에서도 일부 남성들은 이성애적 남성성의 기준에서 벗어나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자 같은 남자(sissy)’ 등과 같이 이들을 향한 다양한 어휘들을 살펴보면 동성애적 여성성에 대한 비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배에 대한 종속적 남성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27]. 이와 같은 논의와 관련하여 <겨울왕국>에서 산 속 작은 가게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오큰(Oaken) 캐릭터는 적절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림 3. <겨울왕국>의 오큰
Fig. 3. Oaken in Frozen

오큰은 전형적인 남성다운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대방을 응시하며 미소를 짓거나 여성다움이 극대화된 손동작 등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오큰의 몸짓은 그의 외형적 특징과는 상반되게 여성적 청순함을 배가시키는 데 충분하며, 스토리텔링 과정 속에서 여성성이 강조된 캐릭터성을 강화시킨다[28]. 특히, 오큰이 사우나 안에 있는 근육질의 남자와 네 명의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가족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오큰이라는 캐릭터의 의미체계를 동성애적 특징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큰 캐릭터에 관한 이와 같은 관점의 논의는 여전히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오큰이 보여주는 동성애적 특징에 대해서는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29].

오큰의 외형적인 모습은 분명히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보여주는 생물학적 기반의 전형적인 남성성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성애적 특징은 극 중 캐릭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 속에서 오큰이라는 캐릭터를 종속적 위치에 머물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종속적 남성성은 동성 내에서의 지배 및 종속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큰 캐릭터의 종속적 남성성은 작품 전반에 걸쳐 헤게모니적 위치에 있는 엘사와 안나라는 여성 캐릭터들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은 디즈니 스튜디오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젠더 정체성의 흐름을 캐릭터들 사이의 지배와 종속이라는 관계 구조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공모적 남성성의 관점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성의 관계 구조 속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해당하는 공모적 남성성은 소수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공모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남성들은 가부장적 시각에서 여성을 지배하고자 한다[30]. 그러나 <겨울왕국>에서 나타나는 공모적 남성성은 코넬이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4. <겨울왕국>의 한스 왕자
Fig. 4. Prince Hans in *Frozen*



그림 5. <겨울왕국>의 위즐턴 공작
Fig. 5. Duke of Weselton in *Frozen*

먼저, 동성이 아닌 이성과의 관계 구조 속에서 공모적 남성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즉, 헤게모니적 여성성을 갖고 있는 엘사와 안나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점과 공모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남성 캐릭터들이 소수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앞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관한 분석적 논의에서와 같이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구분 없이 공모적 남성성에 있어서도 양성성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겨울왕국 아렌델과 인접해 있는 위즐턴 왕국의 위즐턴(Weselton) 공작과 남쪽 어느 섬나라의 왕자 한스(Hans)는 <겨울왕국>에서 공모적 남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남성 캐릭터들이다. 이 두 캐릭터는 남성 고유의 전형적이며 보편적인 모습과 몸짓을 통해 제공에 따른 우월함과 자신감, 품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회경제학적 위치는 남성의 자아감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상위에 존재하는 사회구조를 통해 구성된다[3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스 왕자와 위즐턴 백작은 아렌델 왕국을 지배하는 최상위층은 아니지만, 엘사와 안나라는 헤게모니적 캐릭터로부터 계급적 관점의 혜택을 받으며 타 계층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공모적 남성성의 한스 왕자와 위즐턴 공작 두 캐릭터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각각의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엘사와 안나의 헤게모니적 위치를 빼앗기 위한 모략적이며 공격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실천한다. 그러므로 스토리텔링 과정 속에서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하는 캐릭터 간의 관계와 갈등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며 관객에게 흥미로운 극적 재미를 선사한다. 이러한 점은 전 세계 애니메이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의미체계가 갖는 소통적 특징이자 애니메이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3-4 주변화된 남성성의 관점

주변화된 남성성은 기본적으로 남성 집단 내에 지배 그룹과 피지배 그룹의 관계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변화된 남성성은 지배 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두 남성성의 구분은 변화하는 관계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동시에 두 집단의 성격 유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32].

남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논쟁의 여지없이 의미적으로 남성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남자다운 자세와 신념, 행동 등 총체적인 시각의 접근을 요구한다. 그러나 시대적인 중대한 변화는 그와 같은 남성성이 더 이상 여성을 지배하는 당위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변화는 여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성애적 섹슈얼리티를 떠나서 그들이 보여주는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33]. 그리고 그것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통념적 관계 구조의 변화이며,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더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림 6. <겨울왕국>의 크리스토프
Fig. 6. Kristoff in *Frozen*



그림 7. <겨울왕국>의 안나와 올라프
Fig. 7. Anna and Olaf in *Frozen*

실제로, <겨울왕국>의 두 여성 캐릭터 엘사와 안나는 기존의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보다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변화된 여성상으로 그려진다[34]. 그러한 모습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것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젠더 정체성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엘사와 안나 두 여성 캐릭터들은 극 전반에 걸쳐 조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캐릭터들과의 관계 구조를 통해 그녀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적 여성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안나는 북쪽 산으로 엘사를 찾으러 가는 여정 속에서 얼음장수 크리스토프(Kristoff), 눈사람 캐릭터 올라프(Olaf), 크리스토프의 순록 스벤(Sven)과 같은 캐릭터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조력적인 역할의 캐릭터들은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었던 남성 영웅 중심의 실천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에, 극 전반에 걸쳐 엘사와 안나에게 헤게모니적 권위를 부여하는 피지배적 특징의 젠더 정체성을 보여준다[35].

엘사와 안나에 대한 조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 캐릭터들 중 크리스토프는 외형적으로 전형적인 남성성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 중에서 안나에 대한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뿐,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주도적인 남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작품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크리스토프는 자신과 같이 어린 순록 스벤과 함께 작은 썰매에 얼음조각을 싣고 어른들을 힘겹게 따라간다. 이후 성인으로 성장한 그의 모습도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주요 남성 캐릭터들과는 달리 어수룩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사회성이 부족한 캐릭터로 묘사된다. 크리스토프는 실제로 안나와 함께 엘사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정과 행동을 통해 안나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작품 속 안나와 크리스토프 사이에 존재하는 젠더 정체성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크리스토프는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

는 대부분의 여성 주인공들과 같이 따뜻하고 소박한 성품을 갖고 있으며, 안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역할을 극 전반에 걸쳐 수행한다[36]. 크리스토프의 이러한 극적 행위는 극 전개 상황에 따라서 안나와의 관계 구조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변화시키며 극 후반부에는 동등한 지배 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젠더 정체성에 관한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발전은 항상 새로운 실험적 시도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고착화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기법만을 고집하며 사라져간 수많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과는 차별된 것이다. 즉, 디즈니 스튜디오는 자신들의 애니메이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캐릭터들을 단순한 영감에 의해 그려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여 적절하게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겨울왕국>에 나타나는 남성 캐릭터의 남성성 연구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그러한 시도와 노력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기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었던 캐릭터들과 차별되는 젠더 정체성과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 캐릭터들의 새로운 젠더 정체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즈니 스튜디오는 새로운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화사회적 가능성을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세계 속에 구현한 것이며, 그것은 곧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는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무한한 미학적 잠재력을 과시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참고문헌

[1] J. S. Kang, "The Strategy of Entertainment in Disney Ani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local Culture*, Vol. 5, No. 2, pp. 86-98, 2016.
 [2] R. W. Connell, *Masculinities*, Translated by S. W. Ahn, M. Hyun, Seoul: Imagine Books, 2010.
 [3] C. W. Franklin II, *The Changing Definition of Masculinity*, New York: Plenum Press, 1984.

- [4] R. G. Hu, "About Masculinity,"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No. 2, pp. 94-113, 2000.
- [5] D. I. Oh, H. R. Choi, "A Research on Gender Discourse of Animation Character – Focused on Female Characters of Disney Animation *Froze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5, No. 5, pp. 613-620, 2014.
- [6] H. J. Cho, "Gender Stereotype: Why not disappear?,"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6, No. 3, pp. 107-125, 2001.
- [7] G. L. Mosse, *The Image of Man*, Translated by G. C. Lee, Seoul: Moonye Publishing Co. Ltd, 2004.
- [8] S. A. Kim, S. E. Kim, B. W. Sohn, T. I. Yoon, "The Paradox of 'Flawed Masculinities': The Socio-Cultural Meanings of Masculinities Represented in the Infinite Challeng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8, No. 4, pp. 42-69, 2014.
- [9] M. S. Kim,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Masculinity of Animation I: Focusing on the Male Gesture,"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Vol. 10, No. 3, pp. 31-58, 2014.
- [10] A. R. C. Lee, "Hegemonic Masculinity in Disney Animated Films," *Cartoon & Animation Studies*, pp. 37-50, 2010.
- [11] R. W. Connell, *Masculinities*, Translated by S. W. Ahn, M. Hyun, Seoul: Imagine Books, 2010.
- [12] A. R. C. Lee, "Hegemonic Masculinity in Disney Animated Films," *Cartoon & Animation Studies*, pp. 37-50, 2010.
- [13] R. G. Hu, "About Masculinity,"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No. 2, pp. 94-113, 2000.
- [14] C. W. Franklin II, *The Changing Definition of Masculinity*, New York: Plenum Press, 1984.
- [15] R. Lee, S. G. Baek, "The Female Gender Representations and Multilayered Ideologies in Disney Animation <Frozen> Focusing on Greimas' Semiotic Analysi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9, No. 6, pp. 172-205, 2015.
- [16] J.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 [17] R. G. Hu, "About Masculinity,"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No. 2, pp. 94-113, 2000.
- [18] D. I. Oh, "The Tendency of Denotative Representation and Communication in Disney Anim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578-579, 2014.
- [19] C. Karl, "The Importance of the FBI's Walt Disney File to animation scholars," *Animation Journal*, Spring, pp. 67-77, 1995.
- [20] M. S. Kim,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Femininity of Animation I: Focusing on the Female Gesture,"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Vol. 9, No. 4, pp. 51-76, 2013.
- [21] G. O. Lee, "From Strong Men to Beautiful Men: How Male Portrayals are Changed in Korean Men's Magazines from 1970s to 1990s," *Media, Gender & Culture*, Vol. 22, pp. 151-185, 2012.
- [22] S. J. Lim, J. H. Lee, "The Changes in Social Stereotypes against Wome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Female Character Animation: Focusing on Disney's *Frozen*,"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6.
- [23] H. W. Hae, S. G. Baek, "Gender Representations in Disney's Animations and Their Ideological Meanings: A Semiotic Study on an Animation Picture Titled as Rapunzel with Greimas' Concepts and Model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8, No. 2, pp. 98-136, 2014.
- [24] D. I. Oh, H. R. Choi, "A Research on Gender Discourse of Animation Character – Focused on Female Characters of Disney Animation *Froze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5, No. 5, pp. 613-620, 2014.
- [25] J.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1999.
- [26] J. S. Lee, "A Study on the Changes of Gender Identity Founded in the Character of Elsa on *Frozen* – Focus on Queer Theory," *Cartoon & Animation Studies*, pp. 1-28, 2015.
- [27] R. W. Connell, *Masculinities*, Translated by S. W. Ahn, M. Hyun, Seoul: Imagine Books, 2010.
- [28] M. S. Kim,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Femininity of Animation I: Focusing on the Female Gesture,"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Vol. 9, No. 4, pp. 51-76, 2013.
- [29] E. Diaz, "8 Ways *Frozen* Is Disney's Gayest Animated Film Yet," *The Robot's Voice* [Internet]. Available: http://www.therobotsvoice.com/2014/01/frozen_is_walt_disney_animations.php
- [30] R. W. Connell, *Masculinities*, Translated by S. W. Ahn, M. Hyun, Seoul: Imagine Books, 2010.
- [31] M. S. Kim,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Masculinity of Animation I: Focusing on the Male Gesture,"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Vol. 10, No. 3, pp. 31-58, 2014.
- [32] R. W. Connell, *Masculinities*, Translated by S. W. Ahn, M. Hyun, Seoul: Imagine Books, 2010.
- [33] P. Bourdieu, *La Domination Masculine*, Translated by Y. S. Kim, Seoul: Dongmunson, 2000.
- [34] E. J. Park, "Elsa, Why are you in Fear and Anger?" The Power of Magic and Control of Emotion in *Froze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7, No. 6, pp. 613-621, 2016.
- [35] J. S. Kang, "A Study on Gender Identity of Woman in *Frozen*," *Humanities Contents*, Vol. 37, pp. 173-192, 2015.
- [36] J. H. Han, "From the Perspective of Male Liberation,

Frozen,” *Monthly Chosun*, 2014.04 [Internet]. Available: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b=201404100055>



오동일(Dong-II Oh)

1998년 :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석사
2005년 : 사우스웨일즈대학교 대학원 PhD
(문화콘텐츠 분야)

2011년~2013년: (주) 브로콜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2013년~현 재: 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등